

## 4월혁명시의 매체적 기반과 성격 연구\*

이 순 욱\*\*

### 차 례

- |                      |                          |
|----------------------|--------------------------|
| I. 들머리               | 2. 신문 잡지 매체의 기동성과 민의의 소통 |
| II. 4월혁명시의 창작 환경과 매체 | III. 4월혁명시의 창작 주체와 현황    |
| 1. 선집 발간과 혁명시의 갈무리   | IV. 마무리                  |

### I. 들머리

4월혁명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의해 억압된 집단 기억 가운데 하나이다. 혁명 1주년 이후 거의 모든 문학인들이 침묵과 공허의 은유로서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한 집단적 책무를 망각해 왔다. 그만큼 4월혁명은 기념과 추념의 형식으로 의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침묵과 망각의 메카니즘을 극복하게 된 계기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려는 견고한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5-A00075)

\*\*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연구교수

공식적 기억에 반대하여 대항 기억을 회복하는 일은 집단 망각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투쟁 그 자체이다. 광복기 4·3민중항쟁이나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사건, 4월혁명, 광주민주화항쟁의 역사화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자장 속에 놓여 있었다면, 억압된 집단 기억을 발굴하는 일은 동질화된 기억의 균열을 통해서 역사의 복합성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 위한 지적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4·3민중항쟁이나 광주민주화항쟁에 견주어 4월혁명의 경험은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록되지 못했다. 사단법인 4월회의 주도로 4월혁명 관계 자료를 주제별로 정리한 목록집<sup>1)</sup>이 나와 있기는 하나 4월혁명 문학사료를 갈래별로 온전하게 갈무리하지는 못했다. 1983년 『4월革命紀念詩全集』이 발행된 이후 결정판이라 해도 좋을 만큼의 체계적인 ‘4월혁명문학전집’을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최근 항쟁의 경험과 전통을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혁명문학적 자산을 정리한 일은 값진 성과라 할 만하다.<sup>2)</sup> 3·15의거기념사업회나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보여주듯이 구체성과 개별성을 가진 지역의 항쟁 경험과 실상을 갈무리하고 연구하는 일은 4월혁명의 심층적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4월혁명에 관한 기억의 재구성과 확장, 문학사료의 실증적 이해, 혁명문학의 재생산과 향유가 거듭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기억은 진실의 문제와 결부되어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정당성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혁명 관련 사료를 총체적으로 갈무리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갈래의 다양성이나 작품의 양을 따질 때, 4월혁명문학은 1960년 혁명

1) 4월회 4·19혁명 4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4·19혁명 자료목록집』(4월회, 2000.4)

2) 마산 지역이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이 지역에서는 『깃발, 함성 그리고 자유』(변승기 외, 도서출판 경남, 1990)와 『3·15의거기념시선집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을』(3·15의거기념사업회 엮음, 불휘, 2001)를 잇따라 출간함으로써 지역항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학사료를 갈무리했다.

당해연도에 생산과 재생산, 향유가 가장 폭넓게 이루어졌다. 4월혁명 직후 발행되었거나 제작된 영화<sup>3)</sup>, 기념시집, 수기집<sup>4)</sup>, 소설<sup>5)</sup>, 추모집, 투쟁사, 화보집 등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혁명 당시의 문학적 수용과 열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신문 잡지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추모집이나 투쟁사, 화보집에도 혁명문학작품을 수록하고 있어 혁명문학 연구의 영역은 그만큼 광범위한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4월혁명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1960년에 양산된 혁명문학의 성과는 피의 땀가에 걸맞지 않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반응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사회운동사 관련 서적을 제외하고, 문학 쪽에서 신경림의 『4月革命紀念詩全集』(학민사)이 1983년에 나왔으니 그동안 혁명문학의 의의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셈이다. 이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자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문학 지형의 형성, 4월혁명 이후 예술이 국가화의 기획 속으로 재편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화가 진전되던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다.

최근의 4월혁명문학 연구 또한 대상이나 갈래에서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1960년대 문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조차 소홀하게 다루

3) 『동아일보』 1960년 7월 18일자 3면 하단 광고에서는 “제작 방대훈, 편집·감독 한형모”라는 기사와 함께 장편실록영화 『四月革命』을 소개하고 있다.

4) 이강현 엮음, 『民主革命의 발자취』(서울:정음사, 1960.7.10); 강효순, 『四·一九革命鬪士의 母 李桂丹女史의 手記』(서울:도덕신문사, 1960.12.28)

5) 조정식, 『4·19의 별』(아동문화사, 1960.7.15). 신문 매체에서도 “4·19의거와 애정의 비극, 학도의거의 실명소설”이라는 책 광고(『동아일보』 1960.7.27, 1면)를 내고 있다. 혁명의 열기가 아직까지는 여전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소설은 널리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상하게도 학계에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이 소설은 독립투사 이성환의 아들로 K대 정치과에 다니는 이선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4월혁명의 과정, 주인공의 부상과 죽음, Y여대 국문과 전종림과 S대학 음악과 오근자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연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혁명 당시 대학생들의 의식과 활동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4월혁명문학의 뚜렷한 성과라 할 만하다.

어졌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4월혁명을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성과<sup>6)</sup>가 있으나, 이미 정형화된 연구틀과 방향, 명망주의 작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대상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혁명문학의 도식성과 주제의 단순성, 대상텍스트에 대한 연구자의 단일한 접근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의 4월 혁명문학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sup>7)</sup> 따라서 연구대상의 범위를 수기문학과 일기, 증언문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 시기 또한 혁명문학의 창작이 가장 활발했던 혁명의 발발에서부터 1주년 까지를 실증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 일본문학계의 4월혁명에 대한 관심과 동향도 연구거리이다.

북한문학에서는 4월과 6월에 걸쳐 시와 소설, 정론, 수필 등 신문 잡지 매체에 수록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또한 관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한다. 물론 일본 내 신문 잡지매체를 비롯한 문학매체에서 표출했을 4월혁명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1960년 8월 『血の四月』이라는 항쟁사를 발행할 만큼 관심이 높았던 편이다. 여기에는 남한에서 신문매체에 발표된 시를 비롯하여 혁명참가자와 유족들의 수기, 일기, 유서, 편지들을 수록하고 있다.<sup>8)</sup> 중국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sup>9)</sup> 그만큼 4월혁명은 국제적 관심

6) 최원식·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창작과비평사, 2002)

7) 최근 마산의거를 다룬 북한의 아동문학, 남북한문학에 나타난 마산의거, 그리고 북한의 4월혁명소설을 연구한 한정호와 이순옥, 남상권의 연구가 있다. 한정호, 「북한문학에 나타난 경자년 마산의거와 4월혁명」, 『한국 근대문학과 경자년 3·15마산의거』(3·15의거 제46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3·15의거기념사업회, 2006.4.14), 33~50쪽; 이순옥, 「남북한문학에 나타난 마산의거의 실증적 연구」, 『영주어문』 제12집(영주어문학회, 2006.8), 267~297쪽; 남상권, 「북한판 4·19소재 소설의 대담인식」, 『한민족어문학』 제49집(한민족어문학회, 2006.12), 315~348쪽.

8)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엮음, 『血の四月』(동경:조선청년사, 1960.8.15)

9) 『南朝鮮人民憤怒의火焰』(조선·평양:외국문출판사, 1960.4). 이외에도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문학』 1960년 6월호에는 중국 시인 류란산의 시 「산악들도 분노에

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 셈이다.

이 글은 1960년에 한정하여 4월혁명시<sup>10)</sup>의 창작과 향유를 추동한 매체 환경과 성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대상의 범위와 시기를 1960년에 발표된 시갈래로 한정된 까닭은 혁명시의 창작 열기와 향유를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혁명시의 생산과 재생산의 주요한 거점으로 작용했던 단행본 혁명문학선집의 성격, 신문과 잡지 매체에 드러난 혁명시의 창작 현황과 창작 주체의 문제, 혁명시의 전개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 II. 4월혁명시의 창작 환경과 매체

매체는 문학 향유의 필수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나라잃은시대 말기처럼 매체 활동을 문학인의 이념 선택과 직결시킬 수는 없지만, 매체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갈래 선택이나 작품 활동이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갈래에서는 삶의 순간적 파악에 용이한 시가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현장 수기나 보고문학이 뒤를 따른다. 이 순간의 파악은 시대 상황과 관련 있는 문제로, 당시는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격변기였다. 따라서 시는 당대 사회집단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한 갈래였던 셈이다. 소설의 경우 갈래의 특성상 1960년 당시에는 조정식의 『4·19의 별』이 유일할 정도로 시나 수기의 집중성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혁명문학선집으로 갈무리된 단행본 매체와 신문 잡지 매체로 나누어 4월혁명시의 매체적 기반을 실증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

면다·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에게」를 번역하여 수록하고 있어 당시 중국의 관심과 반응을 짐작할 수 있다.

10) 글쓴이는 4월혁명을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으로 노래한 시들을 모두 4월혁명시로 보았다. 여기에는 현장시나 증언시, 기념시, 송가, 후일담시가 포함된다.

## 1. 선집 발간과 혁명시의 갈무리

출판은 독자대중의 요구와 취향에 대한 가치판단을 수반한다. 그런 까닭에 당대 독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혁명문학선집의 출간은 출판사회학의 관점에서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비록 일시적인 열풍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4월혁명의 이념과 가치를 보다 잘 파악하여 이를 확립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4월혁명문학의 실질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혁명문학선집이며, 추모집, 항쟁사와 화보집에도 혁명문학 작품이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혁명시의 창작과 유통이 문학사료와 역사사료를 넘나들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에 출간된 혁명문학선집을 발행 순으로 들면 아래와 같다.

- (1)한국시인협회 엮음, 『뿌린 피는 永遠히』, 서울:춘조사, 1960.5.19.
- (2)정 천 엮음, 『힘의 宣言』, 부산:해동문화사, 1960.5.30.
- (3)김중윤·송재주 엮음, 『不滅의 旗手』, 서울:성문각, 1960.6.5.
- (4)김용호 엮음, 『抗爭의 廣場』, 서울:신홍출판사, 1960.6.10.
- (5)이상로 엮음, 『피어린 四月의 證言』, 서울:연학사, 1960.6.10.
- (6)교육평론사 엮음, 『學生革命詩集』, 서울:효성문화사, 1960.7.10.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혁명문학선집은 혁명의 열기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5월에서 7월 초순 사이에 출판되었다.<sup>11)</sup> 혁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나 해석은 결여된 채 학교제도나 사회단체 주도로 이루어진 기념행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속한 기획 출판이라 볼 수 있

11) 4월혁명 1주년 기념판으로 발행된 『추억의 혁명』(이평락·서정권 엮음, 서울:연합신문사, 1961.4.19) 또한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1)~(6)에 수록된 박명훈, 이수길, 이봉운, 심재신, 유선준, 김명희, 천규석, 이해현, 이종운, 김용상, 주소천 등의 학생과 구상, 박희진, 양상경 등의 전문시인의 시를 재수록하고 있으나, 전체 47편 가운데 30여편이 새로운 시편들이다. 문인으로는 구상, 박희진, 이희승, 양상경, 예종숙, 박주일이 작품을 실었다.

다. (2)를 제외하고는 훗날 신경림이 『4月革命紀念詩全集』에서 간추렸던 선집이다.

우선, 이들 선집이 학생과 전문시인의 작품만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4월혁명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식인 혁명으로 바라보는 위은이의 공통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두루 알다시피 4월혁명을 주도한 세력은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학생과 지식인 집단이다. 4월혁명을 계기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들 지식인 집단은 민주화가 진전되던 1990년대 까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당시 반정부적 입장을 견지했던 대표적인 잡지 『思想界』와 『새벽』을 보더라도 필진들이 대부분 교수, 언론인, 문학인, 대학생 등의 지식인 집단이며, 이들이 당시 여론 형성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천으로 기능했던 신문 매체에서도 지식인이 주요한 필진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논설위원의 대다수는 대학 교수들이었다.

둘째, 선집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월혁명희생학도추도시집’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1)은 발간사나 발문 없이 학도영령들에 대한 추념적 성격을 전경화 했으며, 혁명시선집 가운데 가장 앞서 발행된 시집이다. 전체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학생들의 시를, 2부에서는 기성문인의 시를 실었다. 특기할 점은 (3)과는 달리 학생들의 소속만 밝혔을 뿐 수록시편의 정확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혁명이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당시의 급박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현종을 제외하고는 1부에 포함된 정진규, 김재원, 주문돈 등은 신춘문예를 통해 1959년과 1960년에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학생문사들이다. 아마도 학생 신분이었고 아직까지는 비교적 덜 알려진 신진시인이었기 때문에 1부에 포함시켰던 것 같다.

(2)는 여태껏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혁명시선집이라 각별히 주목된다. 비록 각 시편들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收錄된 作品은 이

미 여러 紙上에 發表된 것이 大部分”이라는 엮은이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발행지가 부산의 해동문화사이고 필진들의 대부분이 부산·경남에 지역적 연고를 두고 있는 까닭에 실제로 『부산일보』와 『국제신보』에 발표된 시가 많다. 기존의 혁명시선집 목록에서뿐만 ‘한국 현대시집 총목록’에서조차 그 실체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집은 경남·부산 지역의 시인과 시민, 학생들이 쓴 시선집으로서의 지역 대표성, 출판의 기동성, 혁명에 대한 역사적 화석화에 맞서는 새로운 담론 창발과 재구성을 위한 기폭제로서의 상징성<sup>12)</sup>을 지닌다는 뜻에서 그 의의가 사뭇 각별하다. 지역을 거점으로 기획·출판된 유일한 혁명시선집인 셈이다. 이 선집은 『깃발, 함성 그리고 자유』(변승기 외, 경남, 1990)과 3·15의거기념시선집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을』(3·15의거기념사업회 엮음, 불휘, 2001), 『근현대 부산·경남 항쟁문학 사료집 I~V(구모룡·김경복 외 여럿 엮음, 부산민주공원, 2003)로 이어지는 경남·부산지역 혁명문학의 전범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더욱이 정진업의 「노래 속에 나오는 「니이나, 처럼」」를 통해 당시 정부 당국의 보도관제가 작동되고 있었던 사정<sup>13)</sup>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발표지면인 『부산일보』(5.5. 4면)에서도 이러한 균검열 삭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김태

12) 박태일, 「경자마산의거의 시적 형상화와 그 문체」, 『한국 근대문학과 경자년 3·15마산의거』(3·15의거 제46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3·15의거기념사업회, 2006.4.14), 83쪽. 박태일은 이 시집의 의의를 밝히는 자리에서 엮은이 정친이 정진업이나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민족일보 기사를 역임했던 시인 정영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았다. 위의 책, 82쪽 각주 10번 참고. 그러나 정친이 필명이라는 사실에는 선뜻 동의할 수 있지만, 이는 더욱 치밀한 조사를 거쳐 확정해야 할 사항이라 본다. 함께 작품을 실었던 김태홍, 이주홍, 정진업, 장하보, 손동인 등이 이미 작고한 지 오래이고, 유일한 생존자인 정공채는 이 시집의 실체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혁명시선집들이 신문 잡지 매체를 통해 널리 광고되었던 것과는 달리, 당시 『부산일보』와 『국제신보』에서 ‘정친’의 실체를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만한 서평이나 광고 기사를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13) 당시 마산의거의 보도와 관련하여 국제신문사에도 당국의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광우, 『회고와 추억』(자가본, 2003), 140~141쪽.

홍의 「祖國이여! - 合同慰靈祭에 붙임」(『부산일보』(4.24. 4면)은 군검열로 삭제되었으나 4월 26일자 3면을 빌어 다시 수록되기도 했다.<sup>14)</sup>

‘사월민주혁명순국학생기념시집’이라는 표제를 단 (3)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기성시인, 2부 대학생, 3부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시를 실었다. 이승녕이 「序」를, 박목월과 이창로가 각각 「跋文」을 실고 있다. 이 선집은 혁명시선집 가운데 작품의 출처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편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연합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의 중앙 일간지와 『대학신문』, 『단대학보』, 『고대신보』, 『한양신보』, 『중대학보』, 『경대학보』 등의 서울 지역대학의 신문과 학보에 발표된 시를 가려 뽑았다. 그러나 지역지와 잡지 매체 수록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잡지 매체는 『여원』에서 2편(박두진, 박목월)을, 지역지는 「국제신보」에서 단 1편(박양균)만을 수용함으로써 혁명시의 성과를 서울 중심으로 갈무리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역동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4)는 ‘사월혁명기념시집’이라는 표제로 김용호가 엮었다. 이 시집 또한 (1)과 마찬가지로 전체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시인들의 작품을, 2부에서는 학생들의 작품을 수록하였다. 서울 지역 중심으로 혁명시의 성과를 갈무리했던 (1), (3)과는 달리 지역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3)에서 언급한 중앙지나 학보뿐만 아니라 『영남일보』, 『대구매일신문』, 『민주신보』, 『부산일보』, 『국제신보』, 『전남일보』에 발표된 시를 수용함으로써 지역적 균형을 의식하고 출간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백기만, 이운수, 이민영의 시를, 부산에서는 김춘수, 정영태, 정진업, 조순의 시를 수록하고 있어 마산 출신인 엮은이와의 지역적 연고를 엿볼 수 있게 한다.

14) 편집자 주를 달아 삭제된 사정을 밝히고 다시 삽입된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네 가난한 품속에서/그래도 엮어보는 꿈도 마지막 목숨까지도/못난 祖國이여./네 無知한 銃뿌리에/無慘히 짓밟혀 죽던날을/祖國이여.../이날을 銘心하라”

(5)는 전체 2부로, 1부에서는 시를, 2부에서는 산문을 실었으며, ‘4·19 민주혁명문학선’이라는 표제를 내세웠다. 일기와 추도문, 수필, 논문을 함께 수록한 혁명문학선집으로서는 유일하다. (1), (3)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 중심으로 혁명문학의 성과를 압축시켜 놓았다.

(6)은 전국에서 투고한 521편의 학생 시편 가운데 71편만을 추려 실었다. 1장과 2장을 차지하는 작품은 대부분은 “모두 直接 革命데모에 參戰 하여 혹은 銃傷입고 病院에 누어서 혹은 벗을 여의고 거리에 慟哭하면서 젊은 젊은이들의 작품”<sup>15)</sup>이다. 1장은 중고등학생의 작품을, 2장에서는 대학생들의 작품을 실었다. “혁명기념현상당선”이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적으로 가장 폭넓게 혁명시의 성과를 갈무리하고 있는 선집이다. 그리고 이들 작품의 격조를 높이기 위해 기성시인의 작품을 2부에 배치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애초 수록예정작품으로 200여 편을 선정하였으나 지면 관계상 실리지 못한 학생들의 명단과 소속을 선집의 끝에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4월혁명에 대한 문학적 열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셋째, 훗날 기성문인으로 활동했던 학생문사들의 시편들을 두루 확인할 수 있다. 196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정진규(고려대), 이미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김재원(고려대), 마찬가지로 195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주문돈(성균관대), 훗날 1964년 『현대문학』에 추천이 완료되어 등단한 정현중(연세대), 이미 1958년 『사과집』을 발간한 이후 1960년 『자유문학』에 추천 완료된 김사림(동국대)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김재원은 등단 당시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신문과 잡지 매체를 넘나들며 다분히 저항적인 시편을 썼다. 학생문단에서 문재를 떨쳤던 이들 청년문사들의 활동은 다소 소박한 분노를 표출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4월혁명시의 뚜렷한 성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15) 편집위원회, 『革命詩集을 發刊하면서』, 253쪽.

혁명시선집과 다른 자리에서 혁명문학사료로 참고할 만한 것으로는  
항쟁사와 투쟁사, 추모집, 화보집을 들 수 있다.

- (1)이회재 엮음, 『四月에 핀 꽃』, 서울:민중서관공무국, 1960.12.1.
- (2)안종길, 『봄·밤·별』, 서울:경향신문사, 1960.7.1.
- (3)현역일선기자동인 엮음, 『四月革命-學徒의 피와 勝利의 記錄』, 서울:창원사, 1960.5.15.
- (4)김재희 엮음, 『青春義血』, 광주:호남출판사, 1960.6.10.
- (5)안동일·홍기범, 『奇蹟과 幻想』, 서울:영신문화사, 1960.6.13.
- (6)변광도 엮음, 『民主革命 馬山 勝利의 記錄』, 마산일보사, 1960.7.1.
- (7)조화영 엮음, 『四月革命鬪爭史』, 서울:국계출판사, 1960.7.25.
- (8)『民權鬪爭-民主革命의 歷史的 記錄』, 『동방사진뉴스』 제180호, 서울:동방사진뉴스사, 1960.5.23.
- (9)『民主革命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서울:주간교육신문사, 1960.5.
- (10)『民主革命의 記錄』, 서울:동아일보사, 1960.6.1.
- (11)(12)『四月革命 勝利의 記錄』, 대구:경북상공안내사, 1960.7.

(1)~(2)는 추모집이며, (3)~(7)은 항쟁사, (8)~(11)은 화보집이다. 모두 1960년 당시에 발간된 4월혁명사료이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이 추모집이다. (1)은 4월혁명 당시 희생된 경기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종량의 유고작품과 사진, 일기, 각계의 조사, 가족과 친지의 애도사들을 싣고 있다. 엮은이는 고인의 아버지이다. 이어령이 서문을, 엮은이의 후배인 유달영이 편지를, 당시 서울대 총장인 윤일선이 조사를 쓸 정도로 저명인사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조병화가 조시 「久遠의 이름 앞에」를, 경기여고 2학년 김춘자가 「라이락 피는 계절엔 - 벗의 묘지에 라이락을 심으며」를 싣고 있다. 그리고 민주혁명학생위령비에 새겨진 이희승의 시 「경기 남아의 피여!」와 이미 『학생예술』지에 발표되었던 정연길의 「너를 여기 묻게 한 者 누구냐? - 4·19 희생학도들의 영전에」를 채수록하고 있다. (2)는 4월혁명의 와중에서 4월 19일 16세의 나이로 순국한 안

종길의 유시집이다. 유고 120여 편 가운데 47편의 시를 추려 묶었기에 ‘혁명이 낳은 시집’이라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1)과 (2)는 혁명문학작품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와중에서 숨진 영령들의 삶을 기릴 목적으로 희생자들의 유족이나 지역, 소속 단체 등에서 이러한 종류의 추모집을 두루 발간했을 가능성이 크다. (1)에서 보듯이 혁명문학의 성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투쟁사나 항쟁사에는 문학 작품이 두드러지게 수용되지 않았다.<sup>16)</sup> (3)에서는 널리 알려진 강명희의 『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나요』를, (4)에서는 박봉우의 『젊은 火山』을, (6)에서는 기획의도에 걸맞게 김춘수의 『베르디니아의 꽃잎처럼이나 - 馬山事件에 犧牲된 少年들의 靈前에』를 모두 서시로 실었다. 그리고 (4)는 광주, (6)은 4월혁명의 기폭제가 된 마산 지역의 항쟁사를 통해 4월혁명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각별한 자료집이다.

화보집 또한 역사사료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8)은 김기철(건국대)의 『靈이여 微笑를 지어다오』를, (10)의 경우 사진과 함께 수록된 시로는 조지훈의 『鎮魂歌 - 四月革命犧牲學徒慰靈祭 노래』, (3)에도 수록된 강명희(수송초등학교)의 시, 신현경(창신초등학교)의 『거룩하신 형님들』, 이종운(군산고)의 『저 빛을 보았기에』, 이한직의 『鎮魂의 노래』가 있다. 이 시들은 화보의 내용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항쟁의 참상과 비극적 정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투쟁사나 항쟁사, 화보집 등의 역사사료는 드물게나마 혁명시의 생산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 매체라고 볼 수 있겠다.

16) 반면 『四月의 塔』(사월의 탑 편찬위원회 엮음, 서울:세문사, 1967.10)에는 정비석, 조훈파, 선우희의 추도문과 함께 ‘四月의 詩’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김남조, 박봉우, 강명희, 김재원, 박목월, 이정혜, 박태수, 이봉운, 김명희, 김용호, 박화목의 시를 재수록하고 있다. 비록 혁명선집에 갈무리되었던 작품이지만, 혁명시의 이러한 향유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1980년대 신경림의 작업으로 이어지는 출판 전통을 지니고 있다.

## 2. 신문 잡지 매체의 기동성과 민의의 소통

4월혁명문학의 주요한 창작 매체는 신문 매체였다. 정부 기관지였던 『서울신문』을 제외하고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의 중앙지와 『부산일보』, 『국제신보』, 『영남일보』 등의 지역지, 『사상계』, 『새벽』, 『세계』 등의 종합 월간지는 문학작품보다는 사회성 짙은 평문으로 4월혁명을 촉발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신문은 4월 혁명문학의 보고라 할 수 있을 만큼 혁명시를 가장 활발하게 생산한 매체였다. 작가와 독자대중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환의 성질을 감안한다면 일간지는 당대 독자의 사회적 요구와 의도를 수렴하고 합치시키는 데 가장 손쉬운 매체였다. 출판 매체에서는 잡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단행본 매체의 경우에는 혁명 직후에 곧바로 혁명문학선집 형식으로 출판되면서 혁명문학의 성과를 유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혁명의 과정이나 이후에 산발적으로 발표된 개별 시인의 작품은 단행본 시집으로 갈무리되는 까닭에 혁명문학의 집약적인 성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월간지 또한 신문 매체의 신속한 대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대 혁명문학의 주요한 발표 매체였다.

당시 신문이 특정 정당의 대변지로서 대립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제신보』는 비교적 반정부적인 성향이 강한 대표적인 야당지라 볼 수 있다. 『동아일보』는 사주인 김성수가 이승만 세력과 대립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갔다. 야당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온건적이었던 『조선일보』는 이승만 정부가 독재 정치를 강화하자 건국 초기의 중립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다 분명히 했다. 정부 수립 이후 보수적인 노선을 견지했던 『경향신문』도 한국전쟁기 정치과동을 겪으면서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하다 1956년 장면 저격 사건 이후 비판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이 때문에 1959년 4월 30일 폐간되었다가 4월혁명 직후인 1960년 4월 26일 복간되었다.<sup>17)</sup> 『국제신보』와 『부산일보』도 1958년을 전후로 자

유당 말기의 민의를 반영하는 데 주력하다 1960년 마산의거를 맞아 진상 보도와 대담한 논평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sup>18)</sup> 이러한 논조의 변화는 『국제신보』의 이상우와 이병주, 『부산일보』의 황용주, 박두석 등의 편집진의 성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역지는 혁명의 지역적 개별성과 고유성을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신문 매체는 4월혁명 당시 항쟁의 전위에 섰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급격하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용한 까닭에 혁명문학의 주요한 창작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4월혁명시의 창작 기반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두드러졌던 신문 매체에 대한 실증적 이해가 필수적인 셈이다.

1960년대는 사회비평과 학술, 문예를 포괄했던 종합 잡지 매체의 성장과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사상계』, 『새벽』, 『세계』, 『여원』 등이 혁명 당시의 종합 월간지로는 대표적인 잡지 매체이다. 뒤이어 『세대』, 『청맥』, 『한양』 등이 잇따라 창간되었다. 이들 종합지는 50년대 중반 이후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 발행부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950년대 중반에 창간되어 등단의 통로이자 당대 작가들에게 발표 지면을 제공했던 문학전문 월간지인 『현대문학』이나 『자유문학』 보다 훨씬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종합지야말로 필진이나 갈래, 내용 면에서 훨씬 대중적이고 정치 사회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들 잡지에서는 사회평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문학작품에 대한 배려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현대문

17) 반면 자유당 정권에서 정부기관지로 개편된 『서울신문』을 비롯하여 『자유신문』, 『연합신문』, 『국도신문』, 『평화신문』 등이 대표적인 여당지이다. 김민환, 『한국언론사』(사회비평가, 1996), 400~401쪽.

18) 김대상, 『釜山慶南言論使研究』(대왕문화사, 1981), 217~238쪽과 박경장 편저, 『釜山言論界現況』(부산언론계편찬회, 1967), 12~32쪽. 이 무렵 정부 당국의 신문사에 대한 보도관제가 작동되고 있었던 까닭에 마산의거에 대한 진실한 보도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제신문 편집국장을 지냈던 이광우의 『회고와 추억』(자가본, 2003), 139~145쪽을 참고할 것.

학』이나 『自由文學』에 발표된 시들은 당시에는 혁명문학선집에, 훗날 개인시집에 혁명시의 성과로 수록되었다. 하지만 작품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960년 당시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사상계』와 『새벽』에 나타난 4월혁명시의 창작 현황에 대한 원본 확인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지은이	제 목	발표 매체	비 고
1	박두진	우리들의 깃발은 내린 것이 아니다	『사상계』 1960.6.	연작시. 훗날 선집 『피어린 四月의 證言』에서 『터지고야 만 喊聲』으로 개제되어 재수록됨.
2	김춘수	이제야 들었다. 그대들 음성을	''	
3	성찬경	英靈은 말한다	''	
4	신동문	아 神話같이 다비데群들	''	
5	박봉우	참으로 오랜만에	『사상계』 1960.7.	
6	박목월	激流에 부친다	『사상계』 1960.10.	
	박남수			
	이한직 조지훈			
7	조지훈	歸路	''	
8	조병화	祖國이여...나의 어두운 사랑아	『새벽』 1960.5.	
9	김춘수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	
10	구 상	鎮魂曲	''	
11	박두진	우리는 보았다	『새벽』 1960.6.	
12	장만영	世代와 세대와의 交替	''	
13	김수영	우선 그 놈의 사진을 떼어서	''	
14	신동문	學生들의 죽음이 詩人에게 - 아—四月十九日이여	''	
15	김윤식	合掌	''	
16	조지훈	偶吟	『새벽』 1960.9.	

인용문에서 보듯이 잡지 매체에서는 혁명시의 재생산만이 두드러질 뿐이다. 월간으로 간행되었던 까닭에 신문매체의 기동성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만큼 잡지 매체에서는 4월혁명에 대한 문학적 충격과 수용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5월과 6월에 집중

되고 있기 때문에 4월혁명의 원형질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셈이다.

『사상계』나 『새벽』과는 달리 구독층이 얇은 잡지 매체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1편 정도만을 수록하고 있을 뿐이다. 김경수의 『엄숙한 宣言』(『새가정』 6월호), 이석형의 『四·一九에 쓰러진 벗의 靈前』(『정계재계』 5·6월합병호), 안장현의 『피의 抗戰-피지도 못하고 가버린 兄弟여』(『의회평론』 6월호) 등에서 보듯이, 대체로 잡지 매체에서는 5~6월호를 4월혁명 특집으로 다루면서 문학 지면을 할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 III. 4월혁명시의 창작 주체와 현황

1960년 당시에 신문 매체에 발표되었던 4월혁명시의 창작 현황에 대한 원본 확인 결과를 「(붙임자료 2) 신문매체에 수록된 4월혁명시 일람표(1960.3.1~12.31)」에 제시해 두었다. 대상 시기는 대구의거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중앙 일간지였던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지역지인 『국제신보』, 『부산일보』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sup>19)</sup> 왜냐하면 혁명시 생산의 지속과 빈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매체별, 월별, 시인별로 창작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문 매체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창작 주체를 살펴보자. 혁명시의 창작 주체는 전문 시인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지식인 계층이다. 이들은 혁명시선집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매체에서 가장 왕성하게 혁명시를 창작한 주체이다.

19) 지역지 가운데 부산의 매체를 주로 다룬 까닭은 4월혁명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마산의거의 상황을 가장 즉발적으로 수용하고 가장 활발하게 혁명시를 창작한 지역이 바로 부산이기 때문이다.

## (1)학생

강남주 1, 강명희 1, 김명희 1, 김민한 1, 김산초 1, 김순현 1, 김용상  
 1, 김의준 1, 김충효 1,  
 김형필 1, 류재형 1, 박명훈 1, 박태수 1, 박하석 1, 신현경 1, 심재신  
 1, 안 철 1, 오난옥 1,  
 오충수 1, 옥교랑 1, 유우희 1, 이봉운 2, 이수길 1, 이수연 1, 이정혜  
 1, 이종운 1, 이해현 1,  
 조석동 1, 주소천 1, 천규석 1, 최일수 1, 최창호 1.

## (2)시인

고두동 1, 구 상 1, 김남조 1, 김상옥 1, 김수영 1, 김요섭 1, 김용호  
 2, 김재원 1, 김춘수 1,  
 김태홍 4, 박남수 1, 박두진 2, 박목월 1, 박봉우 1, 박화목 1, 박희진  
 1, 손동인 2, 송석래 1,  
 신소야 1, 양상경 1, 이동섭 1, 이세권 1, 이영도 1, 이원수 1, 이인석  
 1, 이주홍 2, 이한직 1,  
 장하보 2, 전영경 1, 정공채 2, 정진업 2, 조 순 1, 조병화 1, 조지훈  
 2, 최종두 1, 홍두표 1,  
 홍준오 2.

4월혁명을 노래한 시인은 37명에 이른다. 물론 부분적인 조사 결과이다. 김태홍이 4편으로 가장 많고, 조지훈, 김용호, 박두진, 손동인, 장하보, 정진업, 홍진오가 각각 2편씩 신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경남에 연고를 둔 시인으로는 고두동, 김상옥, 김춘수, 김태홍, 손동인, 신소야, 이원수, 이영도, 이주홍, 장하보, 정공채, 정진업, 조순, 홍두표 등으로, 혁명시의 창작과 유통에서 부산·경남지역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집단도 32명에 이른다. 특히 강남주와 오난옥은 훗날 제도문단에 발을 들여놓으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창작월별 작품 편수는 단연 1960년 4월과 5월에 집중된다. 두루 알다시피 4월혁명시는 4월 후반부터 5월 초순까지 각종 신문매체를 화려하게 장식했기 때문이다. 혁명시선집까지 포함한다면 5~6월에 작품 편수

가 크게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단행본 선집의 발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

(3)월별 작품 편수

1960년 3월	- 1편(동아 0, 조선 0, 국제 1, 부산 0)
1960년 4월	- 40편(동아 11, 조선 14, 국제 7, 부산 8)
1960년 5월	- 32편(동아 9, 조선 6, 국제 11, 부산 6)
1960년 6월	- 2편(동아 1, 조선 0, 국제 1, 부산 0)
1960년 7월	- 1편(동아 1, 조선 0, 국제 0, 부산 0)
1960년 8월	- 5편(동아 2, 조선 0, 국제 2, 부산 1)
1960년 9월	- 0편(동아 0, 조선 0, 국제 0, 부산 0)
1960년 10월	- 0편(동아 0, 조선 0, 국제 0, 부산 0)
1960년 11월	- 1편(동아 0, 조선 0, 국제 1, 부산 0)
1960년 12월	- 0편(동아 0, 조선 0, 국제 0, 부산 0)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4~5월에 발표된 작품 수는 72편에 이른다. 가히 혁명시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졌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이들 신문 매체에 발표된 시들은 훗날 대부분 혁명시선집에 갈무리되었다. 이는 문학선집 『不滅의 旗手』와 『抗爭의 廣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不滅의 旗手』에서 드러나듯이 잡지 매체에 발표된 시는 박두진과 박목월의 시(『女苑』, 1960.6)뿐이어서 혁명시의 창작과 향유에서 기동성을 지닌 신문이 결정적인 매체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잡지 매체와 신문 매체, 단행본 매체 간에 중복되는 현상도 엿보이는데, 대체로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했던 시를 다시 혁명시선집에 재수록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1)

四·一九以前 대부분의 詩人들은 謫念者에서 혹은 傍觀者로서 或間은 또絶望의인 포즈로 詩作을해온 것이다. 四·一九가 닥치자 이를 詩人들 에게는 靑天霹靂이었다. 더러는 너무 놀라말문이 막히고, 더러는 自愧之心에 사로잡히기도하고, 더러는 젊은이들의 擧事를 若干은 미안한 마음으

로 讚揚하기도했다.

그러나 五月이가고 六月이가고 七月도가고 가을이 다가서자 엉거주춤하다가는 모두들 제자리에 다시 돌아가버린 것이다. 참으로 「革命은 소낙비처럼 산을 넘어 가고」 말했다. (가운데 줄임) 四·一九直後の 그 수다한 革命詩들의 無名旗手들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하고 있는가? 詩로서는 한갓騷音만 남긴채뒤가 없으니 오히려한층 허전해진다. (가운데 줄임) 四·一九를 契機로 詩壇에 新鮮한 空氣가 일지 않을까 하는 期待를 하였지만期待를 저버리고 말했다. 舊態依然하게 各其 舊巢로 찾아들어가고 말했다. 當分間 더 기다려보자. 希望을 가지고-<sup>20)</sup>

(2)

핏방울이 고인채로/잊혀져 있던/한켠레의 현 신발처럼/歷史는 이렇게 無慘한가// -(가운데 줄임)- 保證 못할 盟誓로써/내 오늘 어찌/입치레의 追悼로써/내 오늘 어찌//그날을 回想하며 즐겁겠는가/아아 그날 孤絶했던 한켠레 신발/핏방울 흥건히 고였던 신발처럼/나는 외롭게 혼자 돼서 /오늘을 진종일 통곡할뿐/소리도 다 못내고 통곡할뿐

- 신동문, 「핏방울이 고여있던 한켠레의 신발처럼-痛憤과 넋두리일뿐인 이 한 篇의 詩를 四·一九의 孤魂앞에」 가운데서<sup>21)</sup>

4월혁명시는 1960년 4월과 5월에 걸쳐 가장 역동적으로 창작되고 향유된 경우의 시(Occasional Poetry)이다. 그러나 1960년 후반기로 갈수록 혁명시의 밀도는 줄어들거나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sup>22)</sup> 대체로 혁명선집의 발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5월 중순부터 마무리되는 7월 초순까지 거듭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퇴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다가 1960년 9월 이후부터는 단발적인 관심을 표출하는 선에서 정리되고, 1961년 이후부터는 각종 기념식이나 추모식에서 의례화되는 것이 혁명시의 운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1)에서 김춘수가

20) 김춘수, 「革命은 소낙비처럼 지나가고」, 『동아일보』 1960.12.14, 4면.

21) 『민족일보』 1961.4.21, 4면.

22) 김춘수는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4월혁명 이전의 안일한 자세로 돌아간 결과로 보았다. 김춘수, 「四·一九以後-詩壇」(上), 『부산일보』 1960.12.20, 4면.

(2)에서 신동문이 4월혁명 1주년을 맞아 탄식하고 통곡한바, 4월혁명의 기억을 “한켄레의 흰 신발”처럼 방기하지 않을 때, 4월혁명시는 현대 항쟁문학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수 있는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마무리

4월혁명은 광복 이후 가장 뚜렷한 사회변혁운동이며, 우리 문학사에서 혁명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글에서는 1960년 3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4월혁명을 노래한 시들의 매체적 기반과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4월혁명시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첫째, 혁명시의 주요한 창작 기반은 신문과 잡지 매체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의 중앙지가 가장 결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했으며, 『국제신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전남일보』, 『마산일보』 등의 지역지도 혁명시의 성과를 온축하고 있었다. 반면 『사상계』나 『새벽』, 『세계』, 『여원』 등의 잡지 매체의 경우에는 신문에 비해 혁명시의 창작과 향유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열었다. 신문이나 잡지 매체에 수록되었던 혁명시들은 4월혁명을 기념하는 선집의 출판에 힘입어 혁명문학의 성과로 온전하게 갈무리되었다.

둘째, 창작 계층을 살펴보면, 전문시인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지식인 집단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은 당시에 발간된 혁명문학선집이나 신문 매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을 발표한 창작 주체였다. 당시 혁명에 직접 참가했거나 경험했던 시민들도 창작의 주요한 주체로 볼 수 있으나 지식인 집단에 견주면 그 성과는 턱없이 부족하다.

셋째, 창작월별 작품 편수는 1960년 4월과 5월, 6월에 편향되어 있다. 4월과 5월은 혁명의 경험과 기억이 가장 집약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문 매체의 기동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6월과 7월, 특히 6월에 작품수가 현저하게 많은 까닭은 혁명문학선집의 잇따른 발간과 관련이 있다.

넷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박한 분노를 표출한 시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념시나 추념시의 유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체로 혁명과 그것의 당위에 대한 격정적인 감정과 정형화된 의식, 민주와 민족적 가치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4월혁명의 전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증언시가 드물다는 점이다.

다섯째, 4월혁명은 혁명 과정이나 혁명 직후에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전면화하면서 민주주의적·평등주의적·민족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생자들의 고귀한 죽음을 기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면서 혁명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 그러나 1960년 후반으로 갈수록 혁명의 밀도는 줄어들거나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4월혁명 1주년을 맞아 혁명의 기억은 단발적인 관심을 표출하는 선에서 정리되고, 이후부터는 기념이나 추념의 자리에서 의례화되는 운명을 맞는다. 그만큼 1960년 후반으로 갈수록 혁명의 생산과 재생산은 더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셈이다. 이를 통해 4월혁명은 희생자들의 피의 땀가에 걸맞지 않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반응에 그침으로써 4월혁명이 현대사사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거나 향유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침묵과 망각의 논리에 맞서 4월혁명의 기억과 경험을 재구성하여 이른바 혁명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게 요청되는 과제이다. 기억의 재구성은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는 일이자 개인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명문학을 단순히 현실비판과 고발의 기록으로 보는 미학적 회의주의를 극복하며, 이러한 잣대에 따라 몇몇 명망주의 시인에 편향된 연구 시각과 경향을 과감하

게 확장할 필요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글쓴이가 실증적으로 제시한 몇몇 매체에서 나아가 당시의 중앙지와 지역지를 아우르는 신문, 종합지와 문학지 등의 잡지, 혁명문학선집과 개인시집, 동인지 등의 단행본 매체 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혁명문학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매체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때 비로소 갈래별로 온전한 『4월혁명문학전집』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제어 : 4월혁명, 혁명문학, 혁명시, 증언시, 매체, 실증, 창작 환경, 창작 주체

## 부록

## (붙임) 1. 혁명시선집 수록시 일람

## (1) 『뿌린 피는 永遠히』

번호	지은이	제 목	비 고
1	강영희	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나요	-본문에는 '강명희'로 표기되어 있음 -수송국민학교
2	윤무한	구원한 기도의 章	경북고
3	최윤복	별은 빛난다	성남고
4	전정치	歷史의 그늘밑에	휘문고
5	이재철	光明의 아침	경기공고
6	이건청	태양	
7	양윤식	묘지에서 - 四·一九를 회상하며	중앙고
8	최창호	타버린 얼굴에게	동성고
9	배재균	식지 않을 體溫	성대
10	황문숙	오 잊지 못할 그날이여!	숙명여대
11	김산초	廣場의 證言 - 散華한 벗들에게	
12	정진규	이 純金의 아침에 나는—	고대
13	이정숙	四月의 얼굴에	고대
14	김춘석	一九六〇年の 悲歌	연대
15	김종기	四月의 旗手들에게	고대
16	정현중	오오랜 음성	연대
17	이중흡	四月의 會話	고대
18	이석형	民主의 碑銘을 쓰리라 - 四·一九에 쏠어진 벗의 靈前에	중대
19	김기현	革命 속에서	고대
20	신일수	自由의 旗手들에게 - 돌아오지 않는 꽃들의 영전에	중대
21	김재원	그날 너는 내 옆에 있었는데	고대
22	주문돈	나와 키를 다투던 너는	성대
23	신동문	學生들의 주검이 詩人에게 - 아— 四月十一九日이여	
24	박희진	썩은 貪官汚吏들에게	
25	박목월	동이 트는 瞬間을	
26	송 옥	四·一九學徒追悼歌	
27	유치환	하늬바람의 노래	

28	황금찬	성난 獅子들	1960.4.3.
29	이한직	깨끗한 손을 가진 분이 계시거든	
30	정한모	빈 椅子	
31	김수영	하·· 그림자가 없다	
32	박성룡	祖國은 모두 너희들 것이다	
33	장만영	吊歌 - 四·一九 젊은 녀들 앞에	
34	김원태	太陽처럼 가슴에 피는 꽃	
35	박두진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 4·19에 부쳐	
36	김광림	진달래	
37	박남수	不死鳥에 부치는 노래	
38	고 원	욕된 목숨 이어온 우리들 여기	
39	조지훈	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 - 어느 스승의 뉘우침에서	

(2) 『힘의 宣言』

번호	지은이	제 목	비 고	
1	정 천	序詩		
2	김태홍	-長壽 「총알은 눈이 멀었다」의 序詩에서		
3	오난옥	馬山은! 그 하늘 아래서		
4	박세운	우리의 눈은 감을수 없다 - 四月에 꽃진 英靈들의 말		
5	정공채	또다시 젊은 獅子들의 怒한 데모를		
6	신대하	단 몇개의 조각들		
7	이주홍	목은것의 잿더미위에 다시 太陽은 쏜는다 - 永遠의 感激 四月二十六日		
8	최종두	빨래 - 第二共和國에 부쳐		
9	정진엽	노래속에 나오는 「니이나」처럼		
10	김상호	朱烈君 靈前에		
11	장하보	여기는 아무도 오지 말라 - 四·二六學生義舉의 날에 犧牲된 英靈의 慰靈塔詩文을 爲하여		
12	손동인	餘恨 - 아직은 香불 사르지말라		合同慰靈祭에 부쳐서
13	김민한	慰靈詞		
14	박창문	지금은 말할수 있느냐		
15	정 천	詩의 宣言 - 四月革命記念詩集 끝에 부치다		

## (3) 『不滅의 旗手』

번호	지은이	제목	비고
1	이희승	四·一九 犧牲者들의 祭壇에	1960.4.24.
2	고 우 (古雨)	祭床 앞에서 - 舊世代는 머리 숙인다	연합신문, 4.29.
3	구 상	鎮魂曲	동아일보, 5.19.
4	구자운	젊은 길은 피로써 물들인 큰길에서	세계일보 4.24.
5	권용태	내 祖國을 向하여	동아일보, 5.12(夕).
6	김상중	記錄	경향신문, 5.14.
7	김남조	奇蹟의 塔을	경향신문, 4.24(夕).
8	김용호	해마다 四月이 오면 - 모든 榮光은 젊은이들에게	조선일보, 4.28(夕).
9	김재원	명든 四月	조선일보, 4.26.
10	박경용	鎮魂歌	한국일보, 5.19.
11	무명녀	그 地點에서	조선일보, 4.25.
12	박기원	鎮魂歌	한국일보, 4.27.
13	박남수	不死鳥에 부치는 노래	조선일보, 5.2(夕). (1)과 중복
14	박두진	당신들은 우리들과 한 핏줄이었다	여원, 6월호.
15	박목월	죽어서 永遠히 사는 분들을 위하여	여원, 6월호.
16	박봉우	젊은 火山	동아일보, 4.25(夕)
17	박양균	無名의 힘은 眞實하였다 - 四·一九에 前後한 時局에 말한다	국제신문, 4.27.
18	박화목	四月	조선일보, 5.3(夕).
19	송 욱	소리치는 太陽	한국일보, 5.1(朝).
20	순 이	아우의 靈前에	한국일보, 4.25. 경기고 故 完基君의 누나.
21	신기선	歷史에 새겨진 꽃들 - 젊은 靈魂 앞에 부치다	한국일보, 4.27(朝).
22	양상경	正義의 旗手	동아일보, 4.26.
23	이경남	가을은 아직 꽃구슬 꺾며	세계일보, 4.27(夕).
24	이수연	- 四·一九 負傷者에 바쳐진 人情頌歌	조선일보, 4.26(夕).
25	이용상	廣場에 홀로	경향신문, 5.17.
26	이인석	證言 - 國民은 勝利한다	조선일보, 4.27(夕).
27	이철균	四·一九	세계일보, 4.27(夕).
28	이한직	깨끗한 손을 가진 분이 계시거든 꽃과 피가 滿發한 四月을 記憶하다	경향신문, 4.27(夕). (1)과 중복.
29	이홍우	-코리아·1960·그리고 四月의 事件을 위하여	연합신문, 4.30(夕).
30	장국진	널 속에서 꽃이 피었다	동아일보, 4.29(朝).
31	장만영	吊歌	한양신문, 5.1. (1)과 중복.

32	장수덕	피의 日蝕 - 忠魂들 앞에서	고려시보, 5.13.
33	전영경	대한민국 만세	조선일보, 4.28(夕).
34	조병화	一九六〇年 四月 - 어린 先烈에	조선일보, 4.30.
35	조지훈	마침내 여기 이르지 않은 끝나지 않을 줄 이미 알았다	경향신문, 4.27(夕).
36	최민순	피의 勝利	경향신문, 4.30(夕).
37	최 백	四月의 死者에게서 온 편지	경향신문, 5.1(朝).
38	최 원	아주 가는 것일까	한국일보, 4.29(夕). 조시
39	최 천	民族의 魂불	경향신문, 5.14(夕). 시조
40	황금찬	성난 獅子들	한국일보, 5.3(夕).
41	고신만	兄! 兄! - 모래 위에 새긴 피의 記錄	연합신문, 4.24.
42	김광협	不滅할 星群의 그늘 아래	대학신문, 5.2 조시
43	김명희	남은 가시고	동아일보, 5.2(夕). 이대. 동아일보, 4.24(夕). 서울대. (1)과 중복
44	김산초	廣場의 證言	고대신보, 5.3. 고대.
45	김석주	방아쇠와 誤解와	단대학보, 5.1. 단대.
46	김태룡	四月에 부치는 노래	동아일보, 4.26. 고대.
47	김용상	불러도 대답 없는 벗아	경대학보, 4.20. 경기대.
48	김충석	한 피	조선일보, 5.5(夕). 외대.
49	김형필	市民의 눈	동아일보, 4.23(夕). 무명 대 학생.
50		눈을 감은 學友들에게	동아일보, 4.28(夕). 고대.
51	박명훈	民主의 새 아침은 밝았다	동아일보, 4.28. 국학대.
52	안 철	서러운 골목	한양신보. 한양대.
53	류계천	四·一九	동아일보, 5.3(夕). 연대.
54	유선용	旗 - 이름 없는 별들을 위하여	조선일보, 5.5(夕). 동대.
55	유우희	삶을 찾는 무리들	동아일보, 4.29(夕). 중대.
56	이봉운	어머니	중대학보, 5.1. 중대. (1)과 중복.
57	이석형	民主의 碑銘을 쓰리라	동아일보, 5.16. 성대.
58	이수길	歷史 위에서	고대신보, 5.3. 고대. (1)과 중복.
59	이중흡	四月의 會話	동아일보, 4.30. 경기대.
60	이해현	그대는 아시겠지요	동아일보, 4.29(夕). 대학생.
61	주소천	푸른 墓碑들이여	동아일보, 4.27(夕). 서라벌예대.
62	천주석	이제는 얼마쯤 사랑할 줄 아는 너와 나와	한국일보, 4.25. 서울대.
63	P.E.O	親舊여 對答하라	한국일보, 4.27. 대전호수문 여고.
64	김신자	개나리꽃 지던 날	조선일보, 5.1(朝).
65	김요섭	군중(群衆)	동아일보, 4.24(朝). 대광고.
66	박태수	먼저 가신 그네들에게	동아일보, 4.30(朝). 동성고.
67	송영치	그래서 歷史는 바뀌게 마련이다	

68	신둔경	거룩하신 형님들	동아일보, 4.24. 창신국민교.
69	윤권태	鎮魂歌 - 金朱烈君의 英靈 앞에	한국일보, 마산고.
70	이원수	아우의 노래	동아일보, 5.1(朝).
71	이중운	저 빛을 당신은 보았기에	조선일보, 5.1(夕). 군산고.
72	최창호	創造된 불꽃	조선일보, 4.29(夕). 동성고.
73	한경자	오빠 언니 영전에	한국일보, 4.30(夕남). 남대문 국민교.

## (4) 『抗爭의 廣場』

번호	지은이	제목	비고
1	권용태	내 祖國을 向하여	경향신문. (3)과 중복.
2	구 상	鎮魂曲	(3)과 중복.
3	김광립	꽃망을 터질 때 나는 소리	세계일보.
4	김구용	四·一九頌	주간성대.
5	김남조	奇蹟의 塔을	(3)과 중복.
6	김수영	하·· 그림자가 없다	(1)과 중복.
7	김용호	해마다 四月이 오면 - 모든 榮光은 「젊은 獅子들」에게	(3)과 중복. 부분적으로 손질 함.
8	김춘수	베르디니아의 꽃잎처럼이나 - 馬山에서 犧牲된 少年들의 靈前에	새벽.
9	김태홍	조국이여	부산일보.
10	김해성	四月의 隊列	경향신문.
11	박기원	鎮魂歌	(3)과 중복.
12	박남수	不死鳥에 부치는 노래	(1)(3)과 중복.
13	박두진	당신들은 우리들과 한 핏줄이었다	(3)과 중복.
14	박목월	죽어서 永遠히 사는 분들을 위하여	(3)과 중복.
15	박화목	四月	(3)과 중복.
16	백기만	吊詞	영남일보.
17	송 욱	소리치는 太陽	(3)과 중복.
18	신기선	歷史에 새겨진 꽃들	(3)과 중복.
19	이설주	四月落花 - 殉國學生 英靈들에게	조선일보
20	이운수	鐘	1960년 4월 17일 서울에서. 영남일보.
21	이민영	우리들 이 길을 간다	대구매일신문
22	이희승	四·一九 犧牲者들의 祭壇에	(3)과 중복.
23	장만영	吊歌	(1)(3)과 중복.
24	전영경	대한민국 만세	(3)과 중복.
25	정영태	피로 뿌린 시 來日은 꽃피리	민주신보
26	정진업	系圖	부산일보

27	조병화	旗는 또다시	경향신문
28	조지훈	늪들 마음을 우리는 안다	(1)과 중복.
29	조 순	秩序의 隊列로	국제신보.
30	최민순	피의 勝利	(3)과 중복.
31	고양순	아우의 靈前에	(3)과 중복.
32	김명희	님은 가시고	한국일보. 故 完基君 누이
33	김사립	反射鏡	(3)과 중복.
34	김산초	廣場의 證言	동국대.
35	강정원	病室에 누워	(1)(3)과 중복.
36	김신자	개나리꽃 지던 날	세계일보. 성균관대. 적십자 병원에서.
37	김태룡	四月에 부치는 노래	(3)과 중복.
38	김찬옥	이제는 자리를 바꾸어야 한다	숙명여고.
39	김형필	市民의 눈	(3)과 중복.
40	박명훈	民主의 새 아침은 밝았다	(3)과 중복.
41	박용환	四月의 憤怒	대구일보. 대구대.
42	범빈호	다시는 말하지 않으련다	전남일보. 광주공업고.
43	백인무	旗	서라벌예대.
44	서동원	祈願에의 默禱	전남일보. 조선대.
45	송영치	그래서 歷史는 바뀌게 마련이다	(3)과 중복.
46	심재신	부끄러움	동아일보. 이화여대.
47	양재훈	또 하나의 死者를 본다	전남일보. 전남대.
48	유선준	旗 - 이름없는 별들을 위하여	동아일보. 연세대.
49	유계천	四·一九	(3)과 중복.
50	윤경남	冥想의 시	서울대.
51	이봉운	어머니	(3)과 중복.
52	이석형	民主의 碑銘을 쓰리라	(1)(3)과 중복.
53	이중흡	四月의 會話	(1)(3)과 중복.
54	이종운	저 빛을 당신은 보았기에	(3)과 중복.
55	이향무	또 하나의 旗幅 아래서	서라벌예대.
56	이홍상	천추에 빛날 靈들이여!	국학학보. 국학대.
57	장병화	黎明	영남일보. 대구대.
58	전재일	언제 다시 새 하늘이	민주신보. 금성고.
59	천규석	이제는 얼마쯤 사랑할 줄 이는 너와 나와	(3)과 중복.
60	함근호	죽음이 가기 전에	건대학보. 건국대.

## (5) 이상로 엮음, 『피어린 四月의 證言』

번호	지은이	제목	비고
1	최남규	彈痕의 陳述	경신고.
2	한구석	총알 맞은 世代	서울대.
3	박하석	正義는 땅 위에	서울대.
4	오기환	총소리	건국대.
5	최종률	추악한 下午	연세대.
6	이해현	여기는 鍾路 二街	경기대.
7	이운화	바리케이트	동아공대.
8	김산초	廣場의 證言	(1)(3)(4)와 중복.
9	유선준	旗	(4)와 중복.
10	노익성	革命	4.28.
11	강명희	나는 알아요	(1)과 중복. 제목 변경.
12	윤석호	피의 喊聲	동국대.
13	안 철	서러운 골목	국학대.
14	배기현	여기 쓰러졌노라	
15	정광영	네가 부르짖던 舖道 위에서	대광고.
16	강정현	四月의 깃발 - 赤十字病院二〇六號室에서	성균관대.
17	심창서	산 自由의 하늘이여	
18	권오견	天國을 지나가는 레일	중앙대.
19	정인갑	一九六〇年 四月 十九日	건국대.
20	이민웅	凝視의 詩語들	서울대. 4.22.
21	오기환	觀覽席에서인가	건국대.
22	심재신	부끄러움	(4)와 중복.
23	이 열	나의 하늘 아래에서	
24	심순옥	四月의 이야기 - Tm러진 石들에 부쳐	
25	장국진	四月의 꽃들은	
26	박찬명	어느 少女의 遺書 - 어머니에게 남긴 글	서울대.
27	김용상	불러도 대답 없는 벗아	고려대.
28	김신자	개나리꽃 지던 날	(3)(4)와 중복.
29	윤권태	鎮魂歌	(3)과 중복.
30	독고수	저 멀리 바닷 가에는	
31		눈을 감은 學友들에게	무명대학생. (3)과 중복.
32	주소천	푸른 墓碑들이여	(3)과 중복.
33	박태수	먼저 가신 그네들에게	대광고.
34	순 이	한 송이의 꽃	(3)(4)와 중복. 제목 변경.
35	신현경	거룩하신 형님들	창신초등학교
36	김명희	임은 가시고	(3)(4)와 중복.

37	김춘덕	同志들 무덤 가에서	고대.
38	신무웅	살아 있는 음성	성균관대.
39	이봉운	아들의 발 소리	중앙대.
40	천규석	이제는 얼마쯤 사랑할 줄 아는 너와 나	(3)(4)와 중복.
41	김재원	씨앗의 悲劇	고려대.
42	장성원	맑은 音量的 종 소리	서울대.
43	최 건	審判의 날	고려대.
44	서호생	歷程	4.26.
45	문영수	分娩	연세대.
46	박명훈	民主의 새 아침은 밝았다	(3)(4)와 중복.
47	태 암	植木 - 나무는 심는대로 간다.	시조
48	이정수	復活의 외침 - 義血 名士 앞에...	
49	박용삼	意味를 위한 꽃들의 합창	서울대.
50	김용철	아직은 살아서 살아 갈 목숨들아	동국대.
51	권충웅	죽어 간 벗들의 絶叫을 듣는다	한양대.
52	이수연	꽃 구슬 껴머	(3)과 중복.
53	최 준	卽興 二題(아빠들 한테, 형님들 한테) - 教授의 行列과 國軍의 微笑를 보고	시조 조선대.
54	이중흡	四月의 會話	(1)(3)(4)와 중복.
55	김정현	피의 意味 - 四·一九 義舉 學生 記念 碑 建立을 위하여	4.26.
56	김성열	불꽃처럼 번쩍이다 - 瞬에 진 꽃망울들 이어 - 4·19 犧牲者 合同慰靈祭에 부쳐	
57	김춘수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4)와 중복.
58	구 상	鎮魂曲 -	(3)(4)와 중복.
59	구자운	젊은 길은 피로써 물들인 큰 길에서	(3)과 중복.
	박목월		
51	박남수	터지고야 만 喊聲	연작시.
	이한직		
	조지훈		
52	황금찬	성난 獅子들	(3)과 중복.
53	송 욱	四·一九革命의 노래	
54	이경남	가을은 아직	
55	김광림	꽃망울 터질 때 나던 소리	(4)와 중복.
56	이흥우	꽃과 피가 滿發한 四月을 記憶하며	(3)과 중복.
57	이철균	4·19	(3)과 중복.
58	신기선	歷史에 새겨진 꽃들	(3)(4)와 중복.
59	이한직	깨끗한 손을 가진 분이 계시거든	(1)(3)과 중복.
60	이희승	四·一九  희생자들의 祭壇에	(3)(4)와 중복.
61	박화목	四月	(3)(4)와 중복.

62	김선현	落花의 뜰악에서	
63	여영택	고이 잘 자라	
64	박희진	썩은 貪官汚吏들에게	(1)과 중복.
65	박두진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1)과 중복.
66	이상로	四月의 詠詩	

## (6) 『學生革命詩集』

번호	지은이	제 목	비 고
1	김동녕	셋별의 이야기	경기중.
2	김동녕	수술실 밖에서	경기중.
3	김동녕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기중.
4	조정남	피땀 장미꽃 위에 나부끼는 것	전주사범.
5	정광숙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건	이화여고.
6	조성업	그날 탄생한 동생아	이화여고.
7	조성업	씻기지 않는 자욱	이화여고.
8	민용태	星座	전남 광주고.
9	봉필창	더 참을 수 없었다	대신고.
10	윤수천	태양 아래서	안성농고.
11	김현구	아! 저 깃발	덕수상고.
12	허태입	하얀길	동명여고.
13	허태입	太陽의 눈물	동명여고.
14	윤권태	鎮魂歌	(3)(5)와 중복.
15	김병룡	四月	체신고.
16	김신자	개나리꽃 지던 날	(3)(4)(5)와 중복.
17	이무웅	가신 벗이여 고이 잠드소서 - 죽은 벗 南을 생각하며	동성고.
18	이문웅	내 조국 민주대한아	중동고.
19	이성욱	少年	서라벌예고.
20	황 파	꽃은 피다 - 가버린 형에게	강문고.
21	강예섭	四月十九日	동북중.
22	강정자	사월이 기지깁 썩면	전주사범.
23	김영자	無窮香	동덕여고.
24	이 훈	休日	광주고.
25	신난영	待期	전주사범.
26	한은순	장미의 닢들	경주여고.
27	김효성	꽃밭덩이의 行列	중동고.
28	김창수	자유는 정말 돌아오지 않으려나?	마산중.
29	김준식	포도를 갈냥이면	서울사범.
30	민경남	사월은 꽃 피리	동양공고.

31	최경자	민족의 수호자	평택여상.
32	최정자	분수는 아직도 하늘을 향해 뿜어 오른다 - 섭에게	경북여고.
33	이지우	먼저 떠나신 형님께	부산고.
34	금재환	새역사	광주농고.
35	이순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앞에서	신광여고
36	송 현	四月과 피	영동고.
37	김광협	自由의 나무 - 어느 少女의 證言	서울대.
38	김정숙	祈願 - 自由의 礎石위에 잠든 永에게	숭실대.
39	김정숙	어머니	숭실대.
40	김용하	별들의 勝利	경희대.
41	김용하	그것은 倫理다	경희대.
42	정인식	民族의 悲哀가 떠나가는 날	서울대.
43	이정옥	꽃잎의 영혼아!	숙명여대.
44	박상돈	民主의 旗	서울대.
45	심재신	부끄러움	(4)(5)와 중북.
46	이승남	吊章 - 앗겨간 친우 門에게	고려대.
47	학 천	모두는 證言한다	동국대.
48	이희인	四月의 榮光	공주사대.
49	고무일	좋은 結實이더니 - 義死한 서울美大 高嬢에게	고려대.
50	박재홍	歷史는 恒時 말할 줄 안다	서울대.
51	이신창	沈默의 意味	중앙대.
52	이신창	아들	중앙대.
53	변종식	젊은 旗手에 바치는 노래	고려대.
54	김향순	祖國의 거울	숙명여대.
55	이두희	정아에게	중앙대.
56	김일기	피의 노래	장로회신학교
57	염무남	하루 아침에 찾아온 봄	연세대.
58	이봉운	어머니	(3)(4)와 중북.
59	김신현	어제와 오늘	서울대.
51	안석근	蟬皮	국학대.
52	오봉엽	흙을 뒤엎자	전북대.
53	박윤기	거리	장로회신학교.
54	이규호	하늘에서 오는 비	충남대.
55	김성진	그날을 위해 살아온 젊음이기에	서라벌예대.
56	오영생	태양이 되여	경희대.
57	유창범	피를 태워 날은 밝았다	중앙대.
58	용하식	여기 旗를 울려야 하는 族屬이 있다	서울대.
59	강형중	表情	부산대.

60	성낙현	解體의 눈	성균관대.
61	김 화	코리아의 녀	연세대.
62	김주경	우리들의 四月	청주대.
63	정두채	해바라기 殉死	서라벌에대.
64	황의영	爲政者들아 네 나이 몇 살인가?	대한신학교.
65	강 록	碑銘	한국외대.
66	김기환	잊히지 않는 얼굴들	중앙대.
67	이항관	벗의 屍體옆에서	성균관대.
68	박재일	해는 구름에 가려도 밝다	서울대.
69	임연택	永久히 빛나다오 - 너와 함께 웨치던 光化門 네거리를 지나며	고려대.
70	안일영	友情花 지던 날 - 친구 日福에게	국민대.
71	김계수	不死鳥 - 벗 안승준君 영전에	서울대.
72	박두진	우리들의 깃발을 나린 것이 아니다	(1)(5)와 중복.
73	이성교	鎮魂歌	
74	박목월	죽어서 永遠히 사는 분들을 위하여	(3)(4)와 중복.
75	안도섭	누가 막을 수 있었으랴	
76	김구용	四·一九頌	(4)와 중복.
77	김순현	우리의 太陽	
78	정한모	빈 椅子	(1)과 중복.
79	황금찬	學徒慰靈祭에 부쳐	
80	전영경	대한민국 만세	(3)(4)와 중복.
81	이철균	四·一九	(3)(5)와 중복.
82	김춘수	이제야 들었다 그대들 음성을	
83	박희진	이른일곱줄의 悲梅 東方의 黎明에 부치는	
74	김재원	雨後의 街頭에서	
75	이경남	가을은 아직	(5)와 중복.
76	이한직	깨끗한 손을 가진 분이 계시거든	(1)(3)(5)와 중복.
77	황운현	偉大한 憤怒로 터진 四月의 血管이여	
78	이흥후	꽃과 피가 滿發한 四月을 記憶하며	(3)(5)와 중복.
79	박성룡	祖國은 모두 너희들의 것이다	
80	김해성	鍾이 울던 날	
81	김남조	奇蹟의 塔을	(3)(4)와 중복.
82	김선현	落花의 뜰악에서	(5)와 중복.
83	박남수	不死鳥에 부치는 노래	(1)(3)(4)와 중복.
84	김광림	꽃망울 터질 때 나던 소리	(4)와 중복.
85	박희진	썩은 貪官汚吏들에게	(1)(5)와 중복.
86	신동문	아 神話같이 다비데群들	
87	신동엽	阿斯女	
88	고 원	욕된 목숨 이어온 우리들 여기	

89	조지훈	마침내 여기 이르지 않은 끝나지 않을 줄 이미 알았다	(3)과 중복.
----	-----	----------------------------------	----------

(붙임자료 2) 신문매체에 수록된 4월혁명시 일람표(1960.3.1~12.31)

(1) 『동이일보』에 발표된 4월혁명시 일람

번호	지은이	제 목	발표일자	비 고
1	안 철	서러운 골목	4.23. 4면	국학대.
2	박태수	먼저 가신 그네들에게	4.24. 4면	대광고. 소년동아 61호.
3	신현경	거룩하신 형님들	4.25. 3면	창신초등학교.
4	김산초	廣場의 證言 - 散華한 벗들에게	4.25. 4면	서울대.
5	양상경	哭 正義의 旗手	4.26. 4면	
6	김용상	불러도 대답없는 벗아	4.27. 4면	고려대.
7	천규석	이제는 얼마쯤 사랑할 줄 아는 너와 나	4.28. 4면	서라벌예대.
8	박명훈	民主의 새 아침은 밝았다	4.29. 4면	고려대.
9	주소천	푸른 墓碑들이여	4.29. 4면	대학생. 조시.
10	이봉운	어머니	4.30. 4면	중앙대.
11	심재신	부끄러움	4.30. 4면	이화여대.
12	이해현	그대는 아시겠지요	5.1. 4면	경기대.
13	이원수	아우의 노래	5.1. 4면	소년동아.
14	이종운	저 빛을 당신은 보았기에	5.2. 4면	군산고.
15	김명희	넘은 가시고	5.3. 4면	이화여대.
16	김의준	旗 - 이름없는 별들을 위하여	5.4. 4면	연세대
17	박회진	씩은 貪官汚吏들에게	5.8. 4면	
18	이수길	歷史 위에서	5.17. 4면	성균관대
19	조지훈	鎮魂歌 - 四月革命犧牲學徒慰靈祭 노래	5.19. 4면	
20	구 상	鎮魂曲 - 學生 慰靈祭에 부쳐서	5.20. 4면	
21	이봉운	花園의 노래 - 顯忠日에 부쳐	6.7. 4면	중앙대
22	김수영	푸른 하늘을	7.7. 4면	
23	박두진	警告·痛哭·決意 - 第二共和國  첫 八·一五에	8.16. 4면	
24	박하석	鮮紅의 忿怒	8.23. 4면	서울대

## (2) 『조선일보』에 발표된 4월혁명시 일람

번호	지은이	제 목	발표일자	비 고
1	강명희	오빠와 언니가 왜 피를 흘렸는지...	4.23. 3면	수송초등학교.
2	김남조	奇蹟의 탑을	4.24. 4면	
3	박봉우	젊은 火山	4.25. 4면	
4	이수연	꽃구슬 꺾며-四·一九 負傷者에 바쳐진 仁情頌歌	4.26. 4면	
5	박목월	동이 트는 瞬間을	4.26. 2면	
6	김재원	멍든 四月	4.26. 4면	
7	이인석	證言 - 國民은 勝利한다	4.27. 4면	
8	김용호	해마다 四月이 오면 - 모든 榮光은 젊은 이에게	4.28. 4면	
9	이한직	鎮魂의 노래	4.28. 4면	나운영 작곡.
10	전영경	대한민국 만세	4.28. 4면	
11	최창호	創造된 불꽃	4.29. 4면	동성고.
12	이정혜	새날에	4.29. 4면	고려대.
13	조병화	一九六〇年 四月 - 어린 先烈에	4.30. 4면	
14	이세권	결실한 피의 대가:형님, 아우, 누나들 잘 싸웠소	4.30. 4면	
15	김요섭	群衆	5.1. 4면	
16	박남수	不死鳥에 바치는 노래	5.2. 4면	
17	박화목	四月	5.3. 4면	
18	김형필	市民의 눈	5.5. 4면	외국어대.
19	유우희	삶을 찾는 무리들	5.5. 4면	동국대.
20	김순현	우리의 太陽	5.23. 4면	

## (3) 『국제신보』에 발표된 4월혁명시 일람

번호	지은이	제 목	발표일자	비 고
1	김춘수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 馬山事件에犧牲된少年들의靈前에	3.28. 2면.	
2	정공채	하늘이여	4.14. 1면.	
3	이영도	哀歌 - 故金朱烈君靈前에	4.19. 4면.	
4	강남주	十九歲 少年의 죽음 - 合同慰靈祭에 부쳐	4.24. 3면	독자 투고.

5	이주홍	꽃들에 부치어 - 四·一九에 저버린 젊음들의 靈前에	4.24. 4면.	
6	김용호	鎮魂歌	4.25. 4면.	
7	조 순	秩序의 隊列로,	4.27. 4면.	
8	오충수	祈願 - 風化되어가는 碑의 音聲	4.30. 4면.	해동고.
9	신소야	希望의 길로	5.1. 4면.	
10	장하보	頌歌	5.2. 4면.	
11	정공채	또다시 젊은 獅子들의 怒한 「데모」를	5.4. 4면.	
12	최일수	사월의 별이 되어라	5.7. 4면.	동아고.
13	최중두	빨래 - 第二共和國에 부쳐	5.12. 4면.	
14	오난옥	그 하늘 아래서	5.14. 4면.	부산대.
15	류재형	四·一九가 다녀간 거리에서	5.15. 4면.	
16	김태홍	遺書 - 죽은 學生은 말한다	5.19. 3면.	
17	손동인	餘恨 - 아직은 香불 사르지 말라	5.19. 4면.	
18	김민한	慰靈詞	5.21. 4면.	부산대.
19	고두동	느림한 꽃들	5.30. 4면.	
20	송석래	죽은 旗手의 가슴에 핀 薔薇꽃	6.20. 4면.	
21	박두진	우리들의 八·一五를 四·一九에 살자	8.15. 4면.	
22	이동섭	韓國의 脈搏 - 열다섯 八一·五前後에 말한다	8.16. 4면.	
23	조석동	歷史	11.26. 4면.	

(4) 『부산일보』에 발표된 4월혁명시 일람

번호	지은이	제 목	발표일자	비 고
1	김태홍	馬山은!	4.12. 1면	4.26. 3면에서 군검열로 삭제 된 부분을 삼 입함.
2	홍두표	꽃봉오리채 떨어진 꽃송이들이여 - 馬山事件의 銃彈에 쓰러진 學生들의 靈前에	4.13. 4면	
3	김태홍	祖國이여! - 合同慰靈祭에 붙임	4.24. 3면	
4	김태홍	독재는 몰러갔다	4.27. 1면	
5	정진업	系圖 - 四月十九日의 招魂을 위하여	4.27. 4면	

6	손동인	學徒義學의 노래	4.28. 1면	소년부일 제61호.
7	홍준오	그대 冥福만을 빌겠노라 - 門生故 姜壽永의 芳魂에 붙임	4.30. 2면	
8	김충효	오호! 장하거니 내 아들이 - 4·19에 죽은 학생 어머니를 대신하 여	4.30.	
9	이주홍	묵은 것의 잿더미위에 다시 太陽은 쏠 는다	5.1. 4면	
10	홍준오	鎮魂의 노래	5.4. 4면	
11	정진업	노래 속에 나오는 「니이나」처럼	5.5. 4면	
12	김상옥	思母曲	5.8. 4면	
13	육교랑	감지 못하는 눈과 눈 - 4.19犧性學生 慰靈祭에 부침	5.18. 4면	
14	장하보	여기는 아무도 오지 말라 - 四·二六 學生義學의 날에 犧性된 英魂의 慰靈塔詩文을 爲하여	5.19. 1면	
15	조지훈	八·一九五頌 - 새 共和國에 붙인다	8.15. 4면	

## 참고문헌

### 1. 일차 자료

- 3·15의거기념사업회 엮음, 『3·15의거기념시선집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을』, 불휘, 2001.
- 4월의 탑 편찬위원회, 『四月의 塔』, 세문사, 1969.
- 강효순, 『이계단 여사의 수기:4·19투사의 모친』, 도덕신문사, 1960.
- 김용호 엮음, 『抗爭의 廣場』, 신흥출판사, 1960.
- 김재희 엮음, 『青春義血』, 광주:호남출판사, 1960.6.
- 김종윤·송재주 엮음, 『不滅의 旗手』, 성문각, 1960.
- 변광도 엮음, 『民主革命 馬山 勝利의 記錄』, 마산일보사, 1960.7.
- 변승기 외, 『깃발, 함성 그리고 자유』, 도서출판 경남, 1990.
- 신경립 엮음, 『4月革命紀念詩選集』, 학민사, 1983
- 신동엽 엮음, 『學生革命詩集』, 교육평론사, 1960.
- 안동일·홍기범, 『奇蹟과 幻想』, 서울:영신문화사, 1960.6.
- 이강현 엮음, 『民主革命의 발자취』, 정음사, 1960.
- 이상로 엮음, 『피어린 四月의 證言』, 연학사, 1960.
- 이회재 엮음, 『四月에 핀 꽃』, 서울:민중서관공무국, 1960.12.
- 정 천 엮음, 『힘의 宣言』, 해동문화사, 1960.
- 조정식, 『4·19의 별』, 아동문화사, 1960.7.15.
- 조화영 엮음, 『四月革命鬪爭史』, 국제출판사, 1960.
- 한국시인협회 엮음, 『뿌린 피는 永遠히』, 춘조사, 1960.
- 현역일선기자동인 엮음, 『四月革命—學徒의 피와 勝利의 記錄』, 서울:창  
원사, 1960.5.
- 『南朝鮮人民憤怒의 火焰』, 평양:외국문출판사, 1960.
- 『민주혁명 승리의 기록』, 마산일보사, 1960.
- 『民主革命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서울:주간교육신문사, 1960.5.

- 『民主革命의 記錄』, 서울:동아일보사, 1960.6.
- 『민주혁명의 족적』, 정음사, 1960.
- 『四月革命 勝利의 記錄』, 대구:경북상공안내사, 1960.7.
- 『民權鬪爭-民主革命의 歷史的 記錄』, 『동방사진뉴스』 제180호, 서울:동방사진뉴스사, 1960.5.
- 『추억의 혁명』, 연합신문사, 1961.
- 『學生革命詩集』, 효성문화사, 1960.
- 『血の四月』, 동경:조선청년사, 1960.8.
- 『마산일보』, 『국제신보』, 『부산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민족일보』, 『부대신문』, 『고대신문』, 『대학신문』, 『教育評論』, 『向學』, 『人物界』, 『眞相』, 『새가정』, 『政界財界』, 『議會評論』, 『週刊春秋』, 『대한의학협회지』, 『건대학보』, 『새벽』, 『思想界』, 『現代文學』, 『自由文學』,

## 2. 이차 자료

- 4월혁명동지회, 『4월혁명』, 4월혁명동지회출판부, 1965.
- 4월혁명연구소 엮음,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사월혁명』, 한길사, 1990.
- 4월혁명청사편찬위원회, 『4월혁명청사』, 1960.
- 4월회 4·19혁명 4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4·19혁명 자료목록집』, 4월회, 2000.4), 77~99쪽.
- 구모룡, 『3·15시와 기억 투쟁』, 『서정과 현실』 제4호, 도서출판 작가, 2005, 35~55쪽.
- 김경복, 『3·15의거와 민족저항시』, 『서정과 현실』 제4호, 도서출판 작가, 2005, 56~76쪽.
- 김대상, 『釜山慶南言論使研究』, 대왕문화사, 1981, 217~238쪽
- 김동춘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 김민환,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400~401쪽.
- 김재홍, 「현대시와 4·19혁명」, 『한국현대문학의 비극론』, 시와시학사, 1993.
- 나간채·정근식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 남상권, 「북한판 4·19소재 소설의 대남인식」, 『한민족어문학』 제4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6.12, 315~348.
- 민영빈, 『4월의 영웅들』, 일신사, 1960.
-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 연구』, 깊은샘, 1998.
- 박경장 편저, 『釜山言論界現況』, 부산언론계편찬회, 1967, 12~32쪽.
- 박태순, 「4월혁명의 기폭제가 된 김주열의 시신」, 『역사비평』 1992년 봄호, 189~192쪽.
- 박태일, 「경자마산의거의 시적 형상화와 그 문제」, 『한국 근대문학과 경자년 3·15마산의거』, 3·15의거 제46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3·15의거기념사업회, 2006.4.14, 79~111쪽.
- 이 석, 「마산에서의 봄 -민주승리의 날에」, 『마산일보』 1960.4.28.
- 이순욱, 「남북한문학에 나타난 마산의거의 실증적 연구」, 『영주어문』 제12집, 영주어문학회, 2006.8, 267~297쪽.
- 임대식,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2003년 겨울호집, 역사문제연구소, 2003.11, 301~336쪽.
- 주경철,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문학과지성사, 1999.
- 지현모, 『馬山の魂』, 한국국사연구회, 1961.
- 최원식·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 편집부 엮음, 『4·19혁명론 II』, 일월서각, 1983.
- 학민사 편집실 엮음, 『四·一九의 民衆史』, 학민사, 1984.
- 한정호, 「북한문학에 나타난 경자년 마산의거와 4월혁명」, 『한국 근대문학과 경자년 3·15마산의거』, 3·15의거 제46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3·15의거기념사업회, 2006.4.14, 33~50쪽.

<Abstract>

## Media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Poems on April Revolution

Lee, Soon-Wook

The Democratic Uprising in April 1960 was the most significant social revolution since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historic milestone that displayed a new potential for revolutionary literature in the Korean literary history. This paper will examine media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poems on the April Revolution published from March to December 1960 to deepen the positive understanding of April revolutionary poems.

First, the major creation basis for revolutionary poems was newspapers and magazines. Metropolitan newspapers including *Dong-A Ilbo*, *Josun Ilbo*, *Kyungghyang Daily* and *Hankook Ilbo* provided the most critical environment for creation, and regional newspapers including *Kookje Sinbo*, *Busan Ilbo*, *Yeongnam Ilbo*, *Jeonnam Ilbo* and *Masan Ilbo* facilitated the creative work. Meanwhile, such magazines as *Sasanggye*, *Saebyeok*, *Saegye* and *Yeowon* published less works compared to newspapers. Revolutionary poems published in newspapers and magazines were eventually regarded as accomplishments of revolutionary literature, thanks to the publication of anthologies that commemorate the April Revolution.

Second, intellectuals including professional poets and students participated predominantly in the creation. They published the biggest

number of works in the selections of revolutionary literature and newspapers. Citizens who took part in and had a firsthand experience of the revolutionary movement can be seen as a major player in creation, but the outcomes are relatively insignificant.

Third, the creation of works is only concentrated in April, May and June of 1960. It is natural that the works were mostly published in April and May when the experience and memory of the revolution were still vivid, given the agility of newspapers. The remarkably high number of works in July and particularly June can be explained by a series of publications of revolutionary literature selections.

Fourth, as to the content of poems, the ones expressing rustic angers account for the biggest share, and commemorative and tributary poems are also significant in their numbers. They emphasized too much violent emotions and standardized consciousness of the revolution and its legitimacy as well as democratic and nationalist values. The biggest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witness poems that take a general look at the unfolding of the April Revolution.

Fifth, poems on the April Revolution, on the one hand, put the criticism of and struggles against the then Lee Seung-man government and pursued democratic, equalitarian and nationalist values both amidst and right after the revolu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y also wanted to honor the noble sacrifices of victims and renew the commitment of survivors to succeed the revolutionary spirits. Yet, in the late 1960s, the frequency of revolutionary poems publications declined and they were even ignored. As it marked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April Revolution, the memory was

remembered only through a one-off event, and since then the revolution has become a part of regular commemorative or tributary ceremony. This means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revolutionary poems had not been maintain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poems on the April Revolution received only temporary and one-off interest that do not match the noble sacrifices of victims and the April Democratic Uprising has not been continuously produced and enjoyed i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poetry.

Key Words : April Revolution, revolutionary literature, revolutionary poetry, witness poems, medium, positivism, environment for creation, player in creation